



전주비전대 제46대 총학생회장 최용빈씨 당선

전주비전대학교(총장대행 문운규)는 제46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최용빈(태권도체육학과, 정효준(전자과) 학생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최용빈·정효준 학생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전체 투표자의 79.40%의 지지로 당선됐다. 이번 총학생회는 ▲학생회 주관 행사 참여시 포인트 제도 ▲응답하라 비전대학교 ▲학식의 질 개선 ▲행복기숙사 앞 버스정류장 냉·난방기 설치 ▲자격증 취득 지원제도 ▲책물려주기 캠페인 추진 등의 공약으로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다. 최용빈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언제나 학우분들과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겠다는 목표로 학우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학생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천하는 학생회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실공단, 독거노인 20세대에 이불 전달

전주시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이불 20채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공단 복지환경부는 조촌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20세대에 이불을 전달했다. 전달된 이불은 복지환경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병원주 복지환경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나눔 문화가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비록 작지만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주시한의사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쾌척

전주시한의사회(회장 박상구, 함소아한의원 원장)는 6일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만 원을 전주시보건의료소(소장 김신선)에 기탁했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주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전주한변 및 공원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사회봉사활동 제능 기부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박상구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원들의 여건 또한 넉넉하진 않지만 작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선 소장은 "앞으로도 전주시 한의사회가 전주시민사회의 리더로서 따뜻한 도시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존경받는 한의사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전건협 전북도회, 전북도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가 도내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협회는 6일 전라북도도를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임근홍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트가 되길 바란다"며 "도내 3천여 전문건설업체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이웃돕기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 장학사업, 지역문화행사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전북농협-축산운동본부-익산·군산축협, 익산서 행사 가져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은 6일 익산시 삼기면에서 나눔축산운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농촌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을 기부함으로써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익산군산축협 심재집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박기배 삼기면 조합장 이종립 농협익산시지부장 등 참석자들은 삼기면사무소에서 추첨 받은 저소득층 19가구에 연탄 7천여 장을 직접 배달하며 나눔축산운동의 뜻을 함께 실천했다. 심재집 조합장은 "축산인들의 정성을 모아 오늘 연탄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오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작게나마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축산운동은 국민에게 사명받는 지속가능한 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1% 기부·나눔활동, 소외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쟁농가 상생협력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축협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축산인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게나마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대 예비 청년농부, 직접 기른 농산물 기부

ONE-YEAH(원예)협동조합이 지난 3일 어려운 이웃에 직접 재배한 김장채소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영농창업을 위한 원예 작물 재배, 가공, 판매, 홍보 등 실무역량강화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이 영농창업동아리 인큐베이팅 모델로 육성한 협동조합이다. 현재 과수·채소 작목반으로 피그피그, 정직한 배추, 붉은 치마 민초단 등 3개 작목반을 운영 중이며, 각각 무화과, 배추와 무, 양배추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조합 작목반인 '정직한 배추'는 지난 9월부터 친환경으로 배추와 무를 재배하고, 수확시기에 맞춰 지역 알로원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음식점 등에 배추와 무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 행사를 준비한 작목반장 조우석 학생은 "작년에 지역 알로원에 직접 재배한 배추를 기부하고 좋은 기억이 남아 올해도 기회가 된다면 건강한 농산물을 꼭 기부하고 싶었다"며 "코로나19 힘든 시기에 저희가 마음 담아 기른 농산물이 따뜻한 위트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다양한 농산물을 많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4년째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이준구 부단장은 "정직한 배추는 김장채소인 배추와 무의 과중부터 정식, 재배,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며, "매년 관심있는 작목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활동을 통해 미래 청년농부의 꿈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중앙동,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사진전 개최

전주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호정)는 지난 7일부터 관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반려식물 돌봄사업'을 바탕으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 사업은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지원하는 '희망마을 복지공동체 사업'에 중앙동이 공모 선정돼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 7월부터 독거어르신 50여 분은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화분에 직접 반려식물을 심고, 각 가정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정성을 들여 가꾸어 왔으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과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주회 방문해 반려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기록해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중앙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독거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담은 사진 50점을 전시하는 사진전을 진행한다. /김윤성 기자



남원상록골프장,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품 전달

남원시는 남원상록골프장이 6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후원물품으로 라면 80상자(200여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물품은 대신면 소재 정선요양시설 스미일빌과 노인요양시설 효성요양에서 각각상자씩 전달되었다. 남원상록골프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이며, 남부권 대표 골프장으로 공무원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이며, 매년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이용자와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선물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황우일 남원상록골프장 대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으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에 응원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대, 스타트업 CEO와 함께 창업캠프 성료

전주대학교가 지역혁신센터 주관으로 지난 4일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자와 함께하는 창업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전주대 졸업 선배이자 전북도 6차 산업 기반 액셀러레이터 아이디어파트너스 김수환 대표가 멘토로 참여해 후배들에게 대학생 창업에 대한 경험과 비법을 알려줬다. 캠프 주요 프로그램은 ▲사례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성 ▲창업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사업계획서 작성 ▲Start-Up CEO와 학생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등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 창업캠프에 참여한 김호탁 학생(물류무역학과)은 "토요일에 진행되는 교육이다 부담됐으나, 대학 졸업 선배인 대표님의 창업스토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기뻐다"며, "짧은 시간이 아쉽게 느껴질 만큼 좋았고 멘토링을 통해 무엇을 채워야 할지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국 스피치·웅변·시낭송·강사시연대회' 개최

에너지 절약과 농촌 경제를 살리자는 모토로 전국대회를 통해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표현력 향상, 국민의 식개혁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열린 '제38회 전국 스피치·웅변·시낭송·강사시연대회'가 지난 4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열렸다.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정운천 국회의원, 함경식 본 법인 전북 이사장 김중수 관촌농협 감사, 김안욱 본 법인 전북회장, 박영준 우석대 원우회장, 김기수 전북대덕신 연수원장, 강정원 진행위원장 등 15명의 임원들과 수많은 대회 참가자들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치러졌다. 이날 주요 입상자로 정영채(서울)씨가 전체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송용섭(전주), 김연경(전주), 소상호(임실)씨가 웅변부 대상을 수상했다. /김재훈 기자



스피치부 대상으로 한영희(서천), 송석민(익산), 김대선(군산)씨가 차지했다. 이어 배은경(군산), 오이순(전주)씨가 시낭송부 대상, 김정희(전주), 김윤석(대전)씨가 강사부 대상을 수상받았다. /김재훈 기자



남원중부교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 죽향동(동장 이수구)은 지난 3일 남원중부교회(담임목사 박귀선)가 이웃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해 왔다. 남원중부교회는 매년 성금 300만원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수시로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박귀선 목사는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수구 동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탁한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양지중 교육감배태권도대회 남중부 종합우승

전주양지중학교 교장 설동주는 최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전라북도교육감배태권도대회 경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전북차 선발전대회에 출전, 남중부(겨루기)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3학년 박범수 의 다수의 학생들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회에서 1위(금메달)는 2학년 강한솔 최환희 이서준, 국상혁, 1학년 유태훈 이한결 등 6명, 2위(은메달)는 3학년 장민서 양서희, 2학년 김선재 등 3명이 수상했다. 3위(동메달)는 3학년 김건우 학생이 차지했다. 전주양지중 관계자는 "평소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감독교사,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선생님의 노고로 전주양지중학교는 또 한 번의 기쁨을 맛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